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이병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들이 정당도 없고, 정치 경험도 없는 무소속 박원순씨를 시장으로 선출했다. 이것은 정치가들이 현 세대들이 겪고 있는 등락 급, 취업, 안정적 고용, 육아, 주택 등의 문제를 유권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지도자의 모습보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국회에서의 몸싸움 등을 함에 따라 시민들이 현실 정치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 개개인의 조그만 목소리가 침묵으로 사라졌던 과거와 달리 소셜네트워크는 이를 수용, 정제, 확장함으로써 하나의 웅장한 교향악을 창출하는 효과를 냈다. 과거에는 정당에 가입하면 경쟁상대가 타 정당의 소수 정치인 뿐이었으나 이제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다크호스 등장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한국의 신문도 정치인과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은 신문기사 및 뉴스에 대한 설문에서 기자들의 전문성이나 신문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신뢰감은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편파적이라고 느낀 사람이 68.8%,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고 보는 사람이 67.8%, 부유층과 권력층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는 사람이 65.8%, 대책 제시 없이 비판 일변도 56.6% 등이었다. 반면에 2009년 언론인

## 다매체시대 신문 변해야 산다

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이 신문을 신뢰한다고 보는 언론인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언론인보다 9.3%가 많았다.

신문이 이런 착각 속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기존의 일부 독자들은 관성으로 신문을 계속 읽겠지만, 어떤 독자들은 급품공세를 해야만 구독을 할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신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예 소셜네트워크를 주 정보원으로 삼을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신문이 변화하지 않으면 정치관에서처럼 커다란 자각변동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상황이 나빠지

면서 신문 수입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미국의 경우 수입의 80%를 차지하던 광고수입이 2010년에는 5년 전에 비하여 52%나 감소했다. 한국의 경우 2009년에는 2년 전과 비교해서 매출액이 약 33%나 감소했다.

경제상황 외에 한국신문은 또 하나의 복병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광고주들은 광고를 할 때, 신문의 광고효과보다는 책정된 광고비를 다수의 신문사들에게 나눠 줌으로써 신문이 자사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라는 기대로 광고를 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공정사회가 진행되고 이제는 신

사건을 파헤침으로써 낚은 대통령을 하야 시켰던 워싱턴 포스트는 55만 부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신문들은 절대부수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신문 구독료를 올렸고, 절박하는 독자들을 잡기 위하여 과거처럼 할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 가능한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 것보다 확고한 유료독자를 간직함으로써 안정된 구독 수입을 올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물론은 질로 승부를 봐야 한다. 수용자 조사가 보여 준 것처럼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문제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그들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중 어떤 분야에 집중, 특화를 하는 것이 자사에 가장 유리할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셋째는 독자들의 관심, 취향, 소비 패턴 등의 정보를 모으고 이를 매개로 광고 효과를 높여 광고 단가를 높여야 한다.

넷째, 신문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에 있는 젊은 층을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시에 급속하게 퍼지는 태블릿 PC, 스마트 폰을 통해서 어떻게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美 일린(Elon) 대학교 언론학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 칼럼



서정성

필자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진들과 함께 나누지역 사회복지시설인 효혜농원을 방문해 한센인들의 건강을 살폈다. 대부분 눈꺼풀이 처져있고 깃무른 탓에, 이들에게 안과진료는 단비와 같았다. 평소 불편했던 점들을 털어놓으라, 오랜만에 마을을 찾은 젊은이들 구경하러, 어르신들은 진료마감 시간이 다가와도 쉽게 행사장에서 떠나질 않으셨다. 그 모습이 적잖이 내 마음을 슬프게 했다.

그렇 만도 한 게 효혜농원은 봉사자를 위해 찾는 우리들을 제외하곤 외부인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곳이다. 어르신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바로 '한센인'이라는 꼬리표 때문이다. 사실 한센인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완치된 사람에게조차 우리 사회는 그를 '불치병환자'로 내몰다.

나주 효혜원은 1956년 독립운동가 최흥종 선생이 창설한 음성 한센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후유 장애를 안고 있는 10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더 이상 감염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령의 한센인들이 대부분이다.

한센병은 전염성이 매우 낮고 사실상 사멸하고 있는 질병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의 무지로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문둥병' 또는

## 시급한 한센인 의료복지

'나병'으로 알고 있는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불리는 3군 전염병이다.

살만 닿아도 전염되는 병으로 흔히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나균은 간단한 약 복용으로 99.9%가 죽어 병을 옮기지 못한다. 나균은 항생제인 리팜핀 4알을 한 번만 먹어도 99.9% 이상 죽어 길어도 3주 안에 전염력이 사라진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나균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 병에 걸리고 싶어도 걸리지 않는다. 실제로 의료진들이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의 환부를 만지고, 대화를 나눠주지만 병은 옮지 않는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망가뜨려 사람의 손발과 얼굴 등에 변형을 주는 병의 특성이 사회적 편견을 낳은 것이다.

비록 완치는 되었어도 이미 악화된 피부 조직과 건강을 돌이킬 순 없다. 누구보다 의료지원이 절실한 이들이다. 하지만 국립한센병원이 있는 소록도를 제외한 한센인 마

을 대부분은 의료시설이 미비하다. 전국적으로 한센인을 위한 전문의료기관은 6군 데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다보니 한센인 마을의 위치는 도시와 멀 수 밖에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신속한 처치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한센인들은 신체 상 장애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발 등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말초신경 마비에 의한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우리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센인들의 의료복지 시설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적 그룹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차별해 온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을 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한센병에 대한 국민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한센인에 대한 거부감은 바로 우리의 무지에 있기 때문이다. 〈이이안과 원장〉

## 기고



박봉순

F1을 개최하는 전세계 20개 국가 중 14개 나라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어떻게 개최국의 70%가 적자를 보는 스포츠가 세계 3대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며, 60년이라는 세월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유를 알려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스포츠는 도매로 물건을 사다가 소비자에게 파는 소매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스포츠가 유행 또는 티켓 판매라는 단순 매매 상품에서 벗어나 스포츠 마케팅 또는 홍보와 같은 무형의 상품으로 인식된 것은 미디어의 보급과 함께였다. TV 등

## 선진국이 '적자' F1에 관심을 갖는 이유

미디어의 발달은 스포츠를 즐기는 관중 수를 비약적으로 늘렸고 스포츠를 상품으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면서 마케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됐다.

미국의 지방정부들이 수천억의 경기장을 지어 자가 장기임대라는 미끼로 야구·농구·미식축구 프로팀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팀이 갖는 상징적·무형적 가치 - 가 표시된 손익계산서의 숫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만 하더라도 KIA 타이거즈의 경기장 보면 '광주', '무등산'과 같이 광주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수시로 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나간다. 그 결과는 인터넷·신문·방송을 통해 뉴스로 재생산되고 수십 수백 번 반복된다. 이런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가치와 파급력 때문에 스포츠 천국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기회가 오면 프로팀 유치전에 뛰어

드는 것이다.

F1도 마찬가지다.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무형의 가치 때문이다. 이미 F1 그랑프리라는 브랜드는 자동차 경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큰 인지도와 가치를 갖고 있다. 1년 누적 관중 약 275만 명(2010년 20경기)에 경기당 평균 관중 16만 명, 1년 누적 시청자는 5억 명이 넘는다. 16만과 5억이라는 숫자가 바로 F1 브랜드가 갖는 마케팅 가치이며 홍보의 힘이 된다. 무명에 가까웠던 영암이 F1 코리아 그랑프리 도시로 미디어를 통해 전세계에 퍼지고 있으며 그 인지도는 높아 나가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다. 성능과 디자인 모두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축제이자 첨단 자동차 기술의 경연장인 F1을 통해 보급형 자동차 제조사에서 최첨단 기술

과 이미지가 집속된 하나의 브랜드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 리포지셔닝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가져다주는 영향은 올해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의 이용도를 보면 알 수 있다. KIC는 트랙의 우수성뿐 아니라 상징성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각종 국내 자동차대회, 광고 촬영, 유명 해외 자동차 브랜드의 VIP 행사, 성능 실험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회를 비롯해 KIC를 활용하기 위해 많은 마케팅, 홍보, 이벤트가 기획되고 그중 살아남은 기획만이 2011년도 KIC라는 시설을 이용해 실현될 수 있었다. 이런 이벤트를 위해 많은 사람이 지역을 방문하고 자연스럽게 지역경제에 돈의 흐름이 생겨났다. 이는 해가 지나고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발전함에 따라 더 새롭고 다양한 산업으로 파생되어 긍정적 효과로 지역과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F1대회조직위원회 티켓마케팅부장〉

## 대학에 종자학과 신설 전문인력 양성해야

세계는 지금 식량전쟁 중이다. 그 한 가운데에 FTA라는 게 있고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식량은 곧 국가안위의 기본 조건이다. 그래서 식량전쟁, 혹은 식량안보라는 말을 곧잘 쓰며, 정치권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FTA비준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울러 식량안보를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식량안보에 늦게 눈을 뜨는 사이 외국에서는 우리의 식량이나 각종 종자를 무수히 많이 훔쳐가고 약탈해 갔다. 더욱 놀라

운 일은 우리나라 먹을거리의 대명사적인 무나 배추, 고추의 종자도 절반 정도를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아다가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워 기르고 수확한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거의 모든 국민은 종자까지 완전 토종인 줄로 알고 계시는 것인데, 양과와 당근, 토마토는 80%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종자산업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종자산업에 이렇듯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아직도 종자학과가 없다. 그나마 관련 학과라고는 미생

물학과, 생물학과, 생명공학과 등인데 이권 학과에서는 워낙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순수 종자학을 연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전국에 국립대학과 농업계 대학을 중심으로 종자학과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했으면 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연구비용을 들이기 전에 당장 전문 인력부터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종자학과 신설이 절실하며 여기서 제2의 녹색혁명을 주도할 바이오종자의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농업 관계자들이 대학의 종자학과 신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홍서재·광주시 광산구 두점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시설

### 머리채 잠깐 '교편' 어쩌다 이 지경 됐나

우리의 교육현장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달 19일 여중생과 여교사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더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가를 낸 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한다. 교편이 이 정도까지 붕괴됐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교사가 지각이 잦고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을 훈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설사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할 수 있는가. 같은 동료 학생들 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교권침해로 보고, 만일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경우 여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며, 해당 학생에게는 사회봉사나 심리치료를 권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시교육청의 냉정하고 납득할만한 처리 결과를 주목한다.

## 민생 외면한 채 밥그릇만 챙기는 지방의원

광주·전남 지방의회 절반 이상이 내년 의정비를 인상했거나 추진하고 있어 반쪽을 사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지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의 월급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위치는 도시와 멀 수 밖에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신속한 처치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한센인들은 신체 상 장애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발 등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말초신경 마비에 의한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우리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센인들의 의료복지 시설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적 그룹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차별해 온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을 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한센병에 대한 국민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한센인에 대한 거부감은 바로 우리의 무지에 있기 때문이다. 〈이이안과 원장〉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교편을 확고히 재정립하는 일이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임을 새삼 일깨워준다. 실제로 광주·전남에서도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전체 교권침해 건수 13건 가운데 지난해 9건에 이르며, 전남에서도 교권침해 사례 18건 가운데 지난해 16건이나 달할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무관치 않다. 논의 시점이 지난해부터 교권침해가 급증한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에 대한 체벌 금지 등 교육 확립과 학생 인권 보호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빼앗음으로써 교권이 약화된 건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당국과 교사·학부모·교육관계자 등은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보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교권 추락은 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다.

광주·전남 지방의회 절반 이상이 내년 의정비를 인상했거나 추진하고 있어 반쪽을 사고 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지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의 월급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위치는 도시와 멀 수 밖에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신속한 처치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한센인들은 신체 상 장애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발 등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말초신경 마비에 의한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우리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센인들의 의료복지 시설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적 그룹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차별해 온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을 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한센병에 대한 국민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한센인에 대한 거부감은 바로 우리의 무지에 있기 때문이다. 〈이이안과 원장〉

난 수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해 타 시·군 의회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면 설득력이 있다. 그렇더라도 의회들은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등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자체 세수로 인건비 감당조차 못하는 지자체가 광주 5곳 중 4곳, 전남 22곳 중 16곳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인권 개입과 관공성 의무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게 사실이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했는 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서민 생활이나 지자체 재정 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야말로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의정비 인상 추진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감만 키울 수 있다. 주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다.

## 無等鼓

프랑스 파리를 뒤 흔들어 놓았던 소녀시대는 세계적 팝 아티스트로 인정받아 아만 설 수 있는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 진출해 레이디 가가,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미국 톱 가수들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소녀시대, 보아, 강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사이니의 공연을 보려고 멀리 캐나다 퀘벡에서 까지 팬들이 몰려 열광했다. 미국 일간신문 뉴욕데일리뉴스는 '한국 아이돌 그룹은 세련되고 깔끔하고 섹슈얼 이미지를 덜 풍긴다'며 '프리 마운나 처럼 도도하지 않고 팬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하다'고 칭찬을 쏟아냈다.

초신성은 일본 15회 공연에서 15만 원 짜리 표가 전회 전석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대만에서는 슈퍼주니어의 '미인아'와 2PM의 '헨즈업'이 음악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만 소녀들은 2PM이 들렀던 타이베이에 레스토랑, 호텔, 햄버거집을 성지 순례하듯 찾아다닌다. 그럼 사이니는 오는 3일 영국 런던의

오페라 웨스트 엔드 극장에서 개최되는 런던한국영화제 오프닝 갈라 콘서트 'SHINee in London'을 앞두고 영국 최대 극장 체인인 오데온의 예매 시스템을 사상 최초로 마비시켰다. 이처럼 케이팝 스타들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격상시키고 있다.

케이팝, 한류드라마와 영화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효자가 되고 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의류와 화장품,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도 이같은 한류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류의 발원지를 찾아다니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에 초신성은 일본 15회 공연에서 15만 원 짜리 표가 전회 전석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대만에서는 슈퍼주니어의 '미인아'와 2PM의 '헨즈업'이 음악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만 소녀들은 2PM이 들렀던 타이베이에 레스토랑, 호텔, 햄버거집을 성지 순례하듯 찾아다닌다. 그럼 사이니는 오는 3일 영국 런던의

오페라 웨스트 엔드 극장에서 개최되는 런던한국영화제 오프닝 갈라 콘서트 'SHINee in London'을 앞두고 영국 최대 극장 체인인 오데온의 예매 시스템을 사상 최초로 마비시켰다. 이처럼 케이팝 스타들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격상시키고 있다.

## 케이팝의 위력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梁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광)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7-8005)	(F A X 2200-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